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0주일

제37권 49호(가해) 2017년 10월 29일

[오늘의 묵상]



그리스도인들이 초세기부터 지향한 완덕의 길은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세상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도를 터득하려고 속세를 떠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가 가진 공통적인 방법론이고, 가톨릭 교회의 초기 수도자들이 택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험을 거쳐, 진정한 완덕의 길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세상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느님에 대한 기도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허울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아름답게 꾸며지는 '내면의 삶'도 하느님과 만남을 통해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우리 이웃들과 만남으로써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삶은 바로 우리 외적인 인간관계들의 원천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려고, 그리고 하느님만을 생각하려고, 잠시 이웃들과 떨어져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리듬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와 활동의 리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삶입니다. 기도는 활동을 지향하고, 활동은 기도로 우리의 삶을 초대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거룩해지며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은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완벽한 계명이며, 가장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매일 미사 10월호-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인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569-3940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성소후원회(첫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오전 10:00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성소후원회 (2,3,4주일)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로미의 날 (안나/양업/성모/자모/대견) ●꾸리아 ●빈첸시오회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00 오후 12:3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오전	오후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주임신부 : 심원택 토마스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직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연)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황학주와 조상들
	(생)
학생 미사	(연)
	(생) 이운희 바오로
주일 낮 미사	(연) 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리아, 김정례 수산나, 박주현 마리아, 엄정자 분다, 서성용 베드로
	(생)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 김은학 모니카, 박홍룡 요셉, 손석 스테파노, 손왕엽 윌리엄, 티나최, 김명숙 루실라, 임종미 클라라, 황인종 성실 & 박명순 안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22,20-26

화답송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제 2독서 테살로니카1서(1Thessalonians) 1,5-10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22,34-40

영성제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
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VI.미약한 반응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생태계를 보존할 수있는 법적
틀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
경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힘의 구조가
우리의 정치는 물론 자유와 정의를 지배하게 될 것입
니다.

54. 국제 정치의 반응이 얼마나 미약한지 놀라운 정
도입니다. 세계 정상회담의 실패는 우리의 정치가 기
술과 금융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보
여줍니다. 이익집단세력이 너무 크고, 경제적 이익 집
단들이 손쉽게 공동선을 내치 버리고 정보를 조작하
여 그들이 세운 계획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게 합
니다. 「아파레스다 문헌」은 “생명의 원천을 무분별
하게 파괴하는 경제 집단들의 이익이 천연자원을 다
투는 일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된다.”32)고 말합니다.
경제와 기술의 동맹은 그 즉각적 이익과 무관한 모든
것을 결국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
껏 해봐야 피상적인 말, 어찌다 하는 자선행위, 마지
못해 보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입니다.반면에, 사회안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려고
단체들이 기울이는 참다운 노력은 낭만적인 환상에
근거한 골칫거리나 회피해야 할 걸림돌로 여겨지게
됩니다.

55. 일부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더욱 효과적인 관리를 개발하며 부패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태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나쁜 소비습관은 바꾸지 못하고 있
습니다. 그러한 습관은 사라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냉방기 사용의
증가와 그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판매를 통하여 즉
각적 이익을 얻는 시장은 더 많은 수요를 자극합니다.
지구 밖에서 이세상을 관찰하는 이가 있다면 때로는
자기 파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동에 놀라게 될 것
입니다.

<계속>

32. 「아파레스다 문헌」, 471항.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49	249	249
봉헌	270	270	254
성체	287	287	305
파견	321	321	321

무한한 사랑의 나눔

매월 두 번째 주일에는 본당에서 진귀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신자 분들 각자 미사를 드리러 오시면서 한 손에 콩 한 봉지, 쌀 한 주먹, 식용유 한 통, 설탕 한 봉지 등 조금씩 집에서 가져와서 미사 때 봉헌합니다. 가정 방문이나 환자 방문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결코 생활 사정이 넉넉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진 것을 더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자 이러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둘째 주일을 ‘자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본당 신자들의 나눔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도대체 이러한 나눔의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마치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듯이, 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마음은 분명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자들은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충분히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과 감사가 각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흘러 넘쳐 이웃에게까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들을 저희에게 알려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 받은 우리의 이웃들은 다시 한번 그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더더욱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무한한 사랑의 나눔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우리가 받은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을 나 자신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저는 또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달 두 번째 주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봉헌 시간 때 하느님의 사랑을 양손에 가득히 들고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 받는 아들, 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 가득한 표정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받고 돌아갈 또 다른 하느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과테말라 신자들처럼, 하느님 안에 머물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해외선교(과테말라)

노후계획 전면수정

연애편지 대필이 노후 계획이었는데요,
연애편지 정도는 잘 쓸 수 있을 거 같았죠.
어림없는 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연애편지란 구체적 대상이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
아무리 탁월한 문장이라도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저 독백일 뿐인 거죠.
알박한 글재주로
마음을 대신 하겠다니요.
도대체 사랑 없는 연애편지라니요.

- 이영 아네스 -

이번주 전례봉사회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	송인선 안젤라	김금자 테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지아 클라라	송인선 안젤라	박은혜 클라우디아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11월 5 일 서머타임해제

다음 주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제가 해제됩니다.
일요일 새벽 오전 2시를 →1시로 앞으로 돌려 놓거나,
토요일 저녁 잠들기 전에 미리 시계 바늘을
오후 9시를 →8시로 1시간 앞당겨 놓으면 됩니다.
(한 시간 더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도 VIRTUS 교육

VIRTUS는 종교 단체 또는 교회 조직안에서 안전 및 위험 관리 등의 교육 및 훈련 및 모범 사례를 통해 학대를 방지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지역 사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학생과 연관된 봉사자는 의무적 교육)

- VIRTUS I (첫교육) : 11월 4일(토) 오후 2시~5시(3시간)
- VIRTUS II (재교육) : 11월 11일(토) 오후 2시~3시30분
(매4년마다 1.5시간)
- 장소 : 강당
- 수강신청 : 이름과 교육 날짜를 문자로 예약,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행합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성당홈페이지 이용안내

성당 홈페이지(www.103skcc.org) 이용에 불편이 있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교우님들은 홈페이지 관리위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환영합니다.
누구나 이용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문의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안재만 다니엘 103skcc@gmail.com

◆주일학교 학생 밴드부 담당 지도 교사 모집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103skccs@gmail.com ☎ (213)700-9399

◆주일학교 TA 모집

- 주일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도울TA를 모집합니다.
- 자격조건 : 견진을 받은 고등부 학생
- 지원서 제출 및 최종 면담 후에 결정합니다..
- 문의 :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지원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103skccsundayschool@gmail.com

◆SAT II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

- 일시 : 11월 4일
-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글로리아 성가대 악기협조단원 및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 악기 협조 단원 : 바이올린, 플룻, 트럼펫 연주자 각 1명
(대축일 및 특송을 준비합니다.)
- 성가 단원 : 성가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모든 분.
- 문의 : 김 용 스테파노 ☎(310)926-2248
♡♡♡ 주님께서는 당신을 원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 29일: * 쇠고기 미역국 (\$3, 토남1,2만)
* 주일학교: 햄치즈 케사디아 (8 학년)
- 11월 5일: * 김밥(\$4), 컵라면(\$2, 토남 구역 봉사)
* 주일학교: 스펀 무스비 (7 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교복 김대우 김봉녀 김상지 김성현 김형순 박개순 서영주 서은희 송기철 오상준 위진록 이미예 이병우 이재철 이종선 이현주 임순경 정훈모 한창주	성전헌금	김교복 김대우 김봉녀 김상지 박개순 이미예 이병우 이현주 임순경 한창주
	합계:\$3,180		합계 : \$950
주일미사헌금 :\$2,629		도네이션 : \$ 300	

◆ 짧은이들의 '기도 맞들이기' 모임 (찬양과 나눔)

- 일시: 10월 29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 성당

The Saints Koer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Torrance, CA 90505

- 문의: 이명서 수녀 ☎(310) 741-0556

◆ 중·고등부 성경공부 'Junior Bible Study'

- 일시: 11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 문의: 이명서 수녀 ☎(310) 741-0556

◆ 남가주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1월 11일(토)
연도: 오후 1시15분, 미사: 오후 2시
- 장소: Holy Cross Cemetery Chapel
5835 West Slauson Ave. Culver City, CA 90230
- 주최: 남가주 천주교 사제협의회
- 주관: 천주교 성 아그네스성당 ☎(323)731-4433

◆ 남가주 '주사위' 찬양가족 모임

'주사위'란 주님의 사랑을 생활성가로 전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의 약자로 남가주내 생활 음악단체입니다.

- 모집부문: 남녀보컬 및 키보드 각 1명씩
- 자격: 음악을 사랑하고 사명감으로 전할 수 있는 분
- 일정: 매년 정기공연 및 음악회
- 지도: 성 아그네스성당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신청: 허 사도요한 jusawil122@gmail.com

☎(213)923-0898

◆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 (9개월 과정)

- 지도: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전 아네스 (Jenny Jun) ☎(213)507-1144

◆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데히틸다 713-4926	강순복 요셉피나 10/18(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10/14(토)오후6시성당 강당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10/17(화)오후8시 성당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김충섭 마틴 10/01(일)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심재은 클레멘스 10/14(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0/14(토)10시30분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최옥희 데레사 755-8462	최옥희 데레사 10/20(금)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10/10(화)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10/08(일)12시30분 성당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 2	최미열 클라라 938-8089	권오상 바오로 10/09(월)오후7시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숙자 수산나 10/14(토) 오후6시 성당 2층R3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유현화 리디아 10/13(금) 오후7시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안민수 베드로 10/14(토)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박준범 요한 10/13(금) 오후7시
	4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한애경 율리아나 10/11(수)오전 10시 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 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1시
------------	----

광산이 붕괴되었다!

2002년 7월 후텁지근했던 그날, 자동차 라디오에서 이 소식이 흘러나왔다. “이 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서머싯에 있는 퀘크릭 석탄 광산이 무너져 광부 아홉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서머싯에서 약 170Km 떨어진 도로에서 동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에메랄드 빛을 띤 나뭇잎이 줄지어 서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나는 안개로 덮인 산들 저 너머, 무너진 광산에서 흙더미에 갇혀 도움을 손길을 기다리는 광부들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속히 구출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 즈음에 나는 골치 아픈 일이 있어 며칠 밤을 지냈지만 광부들이 처한 상황에 비하면 그런 문제도 아니었다.

나는 산업 안전과 구조를 위한 장비를 판매하는 TCS사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몇 년간 해온 일이지만 그 즈음엔 실적이 말이 아니었기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나의 아내 콜린은 걱정하지 말라며 나를 안심시켰지만, 아내와 세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나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붕괴 현장으로!

전화가 울려 라디오 소리를 낮추었다. 우리 회사의 부사장인 데니스 스위젯이었다.

“롭, 지금 바쁘는가?”

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무너진 광산에 갇힌 광부 구조에 통신 탐사기와 ASAP 전선 900피트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대네.”

나는 어안이 빙빙했다. 방금 라디오에서 들은 뉴스였다. 탐사기는 작년에 있었던 테러 사건에 처음 사용된 최신 기구이다. 핫도그처럼 생긴 철강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나 있어, 소음 없이 소리를 잡아내고 전송할 수 있다.

“지금 워런으로 오게. 거기 소방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네.”

나는 내 업무를 중단하고 부사장을 만나 장비를 받았다. 그러곤 급히 서머싯으로 차를 몰았다. 나의 임무를 전해들은 펜실베이니아 주 기동 경찰들이 나를 호위해주었다. 가속페달을 너무 심하게 밟은 탓인지 내 다리는 뻗뻗해졌고, 나는 고물차가 잘 견여주기만을 바라며 다리에 더 힘을 주었다.

마침내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내가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는 구조대원이 아니다. 나는 내가 판매하는 장비에 관한 정보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나의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했을 뿐이었다. 퀘크릭의 붕괴 현장은 구조대원과 온갖 기계가 동원되어 구조작업을 펼치느라 긴박감이 돌면서 기계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현장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광부들이 삭스만 폐광의 벽을 석탄으로 알고 접근하면서 그 벽이 무너졌고, 6천만 갤런의 물이 그들을 덮친 것이다.

광부들은 살아있는가?

지금 거대한 드릴이 직경 32인치의 구조 구멍을 뚫었다. 그 구멍으로 뜨거운 공기를 저쪽의 광부들에게 넣어주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물을 빼내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몇 번 나더니 들리지 않는다. 광부들은 살아있는가? 수위가 너무 높아진 건 아닌가?

지금으로선 탐사기를 설치할 만한 지점을 찾기까지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었다. 밤이 되어 나는 숙소로 와서 아내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러자 아내가 그랬다.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봤어요. 당신이 구조에 참여한다니 너무 기뻐요. 많은 사람이 그 광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자리에 누웠지만 이것저것을 생각하느라 새벽 네 시경에야 잠이 들었다.

사고 현장의 급박함과는 대조적으로 저쪽에서는 젖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구조 감독 중 한 명인 제프 크라비츠가 삭스만 폐광으로 통하는 직경 6인치 구조 구멍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광부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약 0.4Km 떨어진 지점이었다. 제프의 설명에 따르면, 광부들이 갇힌 폐광의 천장과 물 사이에 몇 미터의 완충지대가 있으므로 그곳을 통해 광부들에게 소리가 전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제프가 말했다.

“드릴은 30m 정도만 내려갑니다. 구조대는 다른 구조 구멍도 뚫고 있지만 시간만 낭비할 겁니다. 드릴이 내려가다가 멈추는 지점을 파악하겠다는 것에 나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6인치 구조 구멍은 스탠치크 씨 집의 뒤뜰에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인 친절한 중년 부부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했다. 불도저를 동원하는 것도!

그 부부는 내게 커피와 식사까지 제공해주었다. 나는 헤드셋을 착용하고서 구조 구멍으로 탐사기를 내려 보냈다.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며 나를 에워쌌다. 나는 저쪽에 신호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반복해도 마찬가지였다. 나를 둘러쌌던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도 계속 시도했다. 나는 표준 신호가 아니라 친구처럼 저쪽의 광부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들의 이름도 모두 들어 알고 있었다.

“거기 천장을 쳐서 ‘탁’소리를 내준다면 스테이크 사줄게요. 거기, 지금 구멍 뚫는 소리나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장비 가방 위에 앉아 목이 지칠 때까지 얘기를 계속해갔다. 아무런 응답 없는 지하를 향해!

드디어 풀을 뜯는 소들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고, 귀뚜라미들의 울음이 시작되었다. <계속>

◆롭 자렘스키 / 가톨릭 굿뉴스

인호(印號)

견진성사 중에 주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견진 받을 이의 이마에 십자 모양으로 축성 성유를 바르며 “(아무개)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도장, 인장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인호’는 하느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과 보증을 의미합니다. 인호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과,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럼 언제 인호가 새겨질까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때에 영적 ‘인장’ 곧 인호가 새겨집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기기 때문에 일생에 한번만 받습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는 영원히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품성사도 그 수품자에게 지울 수 없는 인호를 새깁니다. 누군가의 자녀라면 ‘이따금’ 또는 ‘일부만’이 아니라 언제나 온전히 그들의 자녀이듯,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는 영구히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며 그분의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품성사도 은퇴할 때까지만 수행하는 직업이 아니라 철회할 수 없는, 선물 받은 은총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성사의 효력을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수용, 소명, 보호의 형태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인호가 새겨지는 이 세 성사는 반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274항은 인호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인호’는 성령께서 ‘속량의 날’(에페 4,30)을 위하여 우리에게 찍어 놓으신 표지이다. 과연 세례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다. 끝까지 인호를 간직한, 곧 자신이 받은 세례가 요구하는 것에 충실한 신자는, 신앙의 보람을 지니고, 세례 때에 고백한 그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의 완성인 지복 직관(至福直觀)을 바라면서 부활에 대한 희망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인호를 받은 사람이 성사를 통해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신앙생활의 보람을 느끼며 부활에 대한 희망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면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환영 받을 것입니다.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는 그리스도인이 ()께 속해 있음과, 하느님의 ()과 ()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10월22일 자 정답: 그리스도, 하느님, 오순절, 성령

◆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성경 속 동물」 41 교활한 동물 여우

여우는 교활한 동물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몸집이 가벼운 여우는 사자에게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는 미소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느헤 3,35 참조)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을 폐허 속의 여우에 비유하기도 했다.(13,4 참조)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에도 여우가 등장한다(판관 15,4-5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를 교활한 여우에 비유하셨다.(루카 13,31-32; 마태 14,3-12 참조)

◆ 「성경 속 동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포)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떡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2012 236th ST.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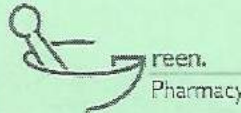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상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3215 Hawthorn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불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